

여름휴가 직전 거리두기 격상 예약취소·일정연기 등 ‘난리’

“당장 이번 주말부터 휴가인데...”

수도권에 이어 광주·전남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지침이 전격 강화됐다. 그러자 미리 계획한 여름 휴가를 부랴부랴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전남도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전날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면서 여름철 휴가를 미리 계획한 지역민들은 황급히 휴가 일정·계획을 번복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집합 인원 제외), 완화된 기존 방역 지침 등에 맞춰 휴가 계획을 세웠는데 갑작스런 모임 인원 제한 강화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광주의 40대 직장인 하모씨는 다음달 부모를 모시고 형제·자매까지 세 가족 11명이 여수를 여행할 계획이었다. 가족 모임이고, 부모를 비롯한 일행 5명이 백신접종을 마친만큼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방역지침 강화로 숙소 예약을 모두 취소한 하씨는 “3년 만에 친정 식구와 함께하

는 여행이라 기대에 부풀었는데 한 순간에 무산된 것 같아 속상하다”며 “올 여름도 남편·자녀와 함께 당일치기 여행이나 집에만 있는 ‘휴가(休家)’를 보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도 ‘5인 금지’ 적용
“벼르고 베프던 여행 아쉬워”
여행·숙박업계 “손실 클 것”**

3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방역지침상 인원제한 상한선인 8명에 맞춰 계모임 여행을 계획했다가, 펜션 예약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이 깊다. 김씨는 “당장 다음주라서 펜션 예약을 취소해야 하지만, 성수기에 어렵게 구한 숙소와 위약금 걱정도 크다”고 토로했다.

민모(28·여)씨는 “이달 말 강원도 양양 바닷가로 친구 2명과 연인끼리 서핑 여행을 가려 했다”면서 “6명에 맞춰 비행기·숙소·승합차를

모두 예약했는데 다음 달로 미루려 했지만, 일행들끼리 일정이 조율 안 돼 어려울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여름철 특수를 노린 여행업계도 예약 취소·연장 사태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광주의 어느 호텔은 8월 첫째 주 성수기 예약 취소 문의가 지난주보다 30%이상 늘었다. 소규모 ‘호캉스’ 주력상품인 2인실 예약은 아직 취소 문의가 없다고 전했다.

전남 신안의 리조트 관계자는 “5인 이상 단체 손님 예약 건이 20%가량 취소됐다. 앞으로 문의가 속출할 것으로 본다”며 “불가피한 취소의 경우 전액 무료 환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의 또 다른 휴양시설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만 5인 이상 이용 가능 객실 8건이 취소됐다”며 “당초 내부 지침대로라면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는 환불이 안 되지만,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성수기 단체 객실 예약이 모두 찬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기동취재본부

여수 10~20대 젊은층 감염 확산...수도권발 풍선효과 우려

여수에서 17일 5명에 이어 18일 자정까지 10대와 20대 7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는 등 젊은 층의 감염이 우려 수준을 넘기고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한 종교 관계자가 다녀간 사우나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1주일 동안 4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감염 세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여수에서는 국내 254명, 해외 26명 등 누적 28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7월 들어서만 10~20대 젊은 층을 포함해 60여 명이 확진됐다.

주로 주점 등을 통해 20대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10대 대학생과 자가격리 중이던 고등학생도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 수용됐다.

이들의 동선은 주로 주점과 아르바이트 장소 등으로 조사되면서 비슷한 또래의 접촉자



19일 전남 여수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줄을 서있다. (사진=독자 제공)

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 방역 당국은 움직임이 활발하고 동선이 다양한 젊은 층의 특성에 따라 정밀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신경

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수시는 여름철 휴가철 관광지를 찾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을 위한 방역 대책에 비상을 걸고 있다. 여수=오상호기자

수습·경력기자 모집

“지역언론의 선봉장인 호남신문에서 재능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모집부문·인원 : 수습·경력기자 0명
- ▶ 지원기간 : 채용시까지
- ▶ 지원자격 : 학력·나이제한 없음
-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2차 면접
-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부착)·자기소개서 각 1부
- ▶ 접수방법 : 등기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ihonam@naver.com)
- ▶ 접수처 :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문의전화 : 062-229-6000)

호남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與, 대선경선 ‘4주’ 연기...10월 10일 최종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코로나19 4차 유행을 고려해 차기 대선 경선 일정을 4주 연기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최종 후보 선출은 5주 후인 오는 10월 10일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은 일정을 확정했다고 이상민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정해진 8월 7일부터의 지역순회 일정을 처음에는 4주, 중간에 추석

연휴기간이 끼어있어 후반부는 5주가 연기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 전국 순회 경선일정은 ▲대전·충남(8월 7일→9월 4일) ▲세종·충북(8월 8일→9월 5일) ▲대구·경북(8월 14일→9월 11일) ▲강원(8월 15일→9월 12일) ▲광주·전남(8월 21일→9월 25일) ▲전북(8월 22일→9월 26일) ▲제주(8월 20일→10월 1일) ▲부산·울산·경남(8월 28일 10월 2일)로 늦춰지게 됐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문 대통령 방일 최종 무산...도쿄올림픽 불참 확정

도쿄올림픽 참성을 한일 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구상이 끝내 무산됐다. 청와대가 도쿄올림픽 개최식 나흘 전인 19일 협상 결렬을 공식 발표하고 올림픽 불참을 확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신세계요양원

장성읍 방울샘길 12 (영천리 1493-5)

신세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061)395-2580
주간보호 061)394-0123

워킹레일